

## 행복한 금요 편지

# 영어에 흥미를 갖게 해주신 영어선생님

최창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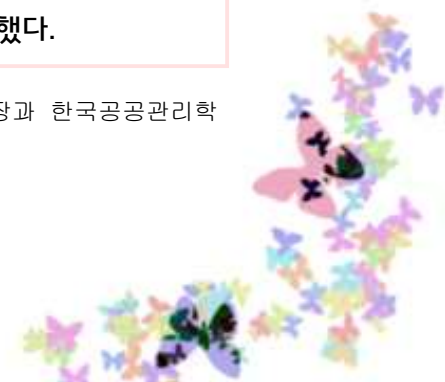
가톨릭관동대 행정학과 교수<sup>1)</sup>

1973년 봄으로 기억된다. 당시 종로 2가에 위치한 EMI 영어학원에서 새벽 단과반을 수강했었다. 나는 중 2학년이었고, 수강생들은 대부분 고입시험을 목전에 둔 중 3학년 생들이었다. 교재는 안현필 영어 실력 기초였던 걸로 기억된다.

첫 날 가보니 한반에 150여명 들어가는 강의실 뒤는 자리가 없고 한 명의 여학생만 있는 앞자리만 한 두 줄 비어 있어 선생님이 앞으로 오라고 하셨다. 처음에는 왜 앞줄이 비어 있는지 몰랐다. 매 수업시간 암기할 문장이 한 20여개 적혀 있는 8절지 종이를 나눠 주시고 다음 날 물어 보니 그 여학생을 빼고는 다 앞자리를 기피했던 것이었다.

머리를 단아하게 묶은 이름도 모르는 그 여학생은 사춘기의 나에게 연상의 여인이었다. 연상의 여인을 두고 자존심 상하게 뒷자리로 가기가 싫어 기초 문법도 모르는 채 무조건 하루에 20여 개의 문장을 외웠다. 저녁에 암기하고도 불안했던 나는 엄마에게 새벽에 깨워 달라고 부탁하고 잠에 들곤 했다. 이렇게 시작된 영어공부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목욕재개하고 상쾌한 마음으로 암기한 문장을 반복해 암기했다.

1) 행복편지를 기고해 주신 최창현 가톨릭관동대 행정학과 교수는 한국조직학회장과 한국공공관리학회 편집위원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한 달이 되어가자, 선생님이 아직 중 2학년생이니 한 달 더 들어보라고 권유하셔서 한 달을 더 신청해서 공부하기로 했다. 흥미점이었던 그 여학생이 나에게 영어를 흥미 있게 만든 선생님인지도 모른다. 한 달이 너무 짧은 시간처럼 흘렀다. 그 연상의 여학생도 영어수강 신청했기를 기대했다. 다시 시작된 첫 수업시간. 문을 열었을 때, 툭툭 튀었던 긴장감이 지금도 새록새록 생각난다.

기대했던 연상의 여학생도 앞줄에 앉아 있었다. 내가 어떻게 기뻐는지 오묘한 감정을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그 시절의 영어공부는 나에게 엄청난 흥미를 제공했다. 어찌나 기뻐했던지 또 미친 듯이 암기해, 500여 문장을 외우니 문법이 저절로 이해가 가기 시작했다.

내가 영어에 흥미를 갖게 한 선생님의 이름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바로 권재열 선생님이다. 선생님 덕분에 아마 내가 유학도 가고 10여년 전 파고다 외국어학원에서 토익 강의를 할 기회도 얻고, 이를 계기로 현 재직 중인 대학의 학과에 공무원 영어 과목을 개설하고, 토익 책을 집필해 행정학과 학생들에게 공무원 시험의 당락을 결정짓는 영어를 가르칠 수 있어 무척 행복하다.

한선행복포럼에서는 ‘행복한 금요편지’이란 에세이를 통해 행복의 가치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당신의 소중한 편지를 기다리겠습니다. 행복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